

예비 귀농산어촌인, ‘전남 맛보기’로 정착 모색

전남도, 곡성·화순서 선배 정착인과 소통 등 현장 교육 호응
11월까지 운영... 희망자 전남도귀농산어촌종합지원센터서 안내

전라남도는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3일간 곡성과 화순에서 선배 귀농인과의 대화, 현장 견학 등 ‘2025년 제1기 전남도 귀농산어촌 맛보기’ 현장 체험 교육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예비 귀농산어촌인 30명은 곡성 귀농인의 블루베리농장 현장 견학, 선배 정착인과 소통의 시간, 강정 및 두부 만들기 체험, 화순 고인돌 문화탐방 등으로 전남의 다양한 매력을 경험했다.

특히 곡성으로 귀농해 유럽 상추를 재배하는 이수경 대표는 귀농 과정, 영농작물 선정 기준, 재배 기술과 판로 과정, 정

작 노하우 등 경험을 토대로 귀농생활에 대한 현실적 조언을 해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한 참가자는 “영상으로만 접했던 스마트폰 시설을 직접 보고, 귀농 선배의 경험담을 들어 이해가 훨씬 쉬웠다”며 “이번 전남 맛보기 행사를 통해 전남지역으로 귀농을 확실히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희경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전남 맛보기 교육이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전남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전



남이 귀농어귀촌의 최적지로 자리잡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맛보기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시범적(2회)으로 실시해 도시민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 확대 추진된다. 3월부터 11월까

지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가를 바라는 서울·경기지역 도시민은 전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1577-1425)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원 기자



환경 길잡이 ‘자원순환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15명 대상, 전문지식 습득 통한 현장 교육 능력 향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26일 동구 인문학당에서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사회를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부터 활동하게 될 자원순환해설사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자원 순환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교육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단에는 이경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장이 올라 참여자들이 실제 동구라미가게 등라 참여자들이 실제 동구라미가게 등

교육은 ▲자원순환해설사의 역할 ▲기후 위기와 자원순환의 중요성 ▲동구라미 가게 운영 방법 등 직무 관련 소양 교육과 ▲근무자 채용 전 안

전보전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교육에 앞서 참여자들은 동구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져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동구는 주민들이 가져오는 재활용품을 포인트로 보상해 주는 고정식·이동식 동구라미 가게와 초등학교생들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의 날,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자원순환해설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원순환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동구 환경정책 전달자로서 가교역할을 수행해 동구 곳곳에 지식과 수 있도록 강연을 펼쳤다.

교육은 ▲자원순환해설사의 역할 ▲기후 위기와 자원순환의 중요성 ▲동구라미 가게 운영 방법 등 직무 관련 소양 교육과 ▲근무자 채용 전 안

/오철수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늘부터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모금은 영남지역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고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시작되어 일주일째 꺼지지 않아 지역 주민의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북구는 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북구, ‘산불 피해 극복’ 위한 성금 모금 나서 역대 최악 산불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 도모

북구 공직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

모인 모금액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되어 피해 주민들의 긴급 구호, 피해 지역 복구 활동 및 이재민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산불

피해 구호 성금 전용 계좌로 송금하면 되고 기타 공금한 사항은 북구청 행정지원과(☎062-410-6121~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산불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며 “이번 성금 모금을 통해 조속한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기원하는 43만 북구 주민과 1천

7백여 공직자의 마음이 영남까지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모금 활동이 광주시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 피해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대형 산불로 인해 소방 인력과 장비가 산불 현장으로 투입된 상황에서 지역의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400여 명의 공직자가 산불 취약지 순찰 및 대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 중심의 진짜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시작한다. 서구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주민 제안사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 서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20억원으로 ▲구정참여형(3억원) ▲지역참

서구, 2026년 주민참여예산 공모 돌입 실효성 높이기 위한 예산학교,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

여형(9억원) ▲마을계획형(6억원) ▲청년참여형(2억원)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모집한다.

공모 참여는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구 내 사업체에 종사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구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예산 편성 과정을

보다 쉽게 교육하고 실습 수업을 통해 구체적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컨설팅으로 제안사업의 현실성을 높이고 실시간 공모 접수 창구도 운영해 주민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예정이다.

허미옥 기획실장은 “주민의 제안이 실

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며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서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주민 자전거 무료 교실, 마을 건강 표지관 제작, 청년 외식창업 아카데미, 버스정류장 내 운영의자 설치 등 주민 체감형 사업들을 시행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 마을행복학습센터 ‘즐거는 평생학습’ 택견·우쿨렐레·재봉틀 등 20개 프로그램 진행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마을 생활권 단위의 주민 밀착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관내 마을행복학습센터 11곳에서 우리 동네 희망 배움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택견을 비롯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직업·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양성 과정, 우쿨렐레 초급 과정, 웰니스 건강운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유익함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27일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마을별 고유 특성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마을행복학습센터에서 20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마을별 행복학습센터는 거점 센터인 남구 평생학습관을 포함해 양림동과 방림2동, 봉선1·2동, 사직동, 월산4·5동, 백운1동, 주월2동, 효덕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마을커뮤니티센터에 자리하고 있다.

우선 남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편 댄스와 Canva 디자인 클래스, 직업·진로 지도사 1급 양성 과정, 우쿨렐레, 힐링 다례까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양림동 행복학습센터는 야생화와 살사 & 바차타 댄스를 선보인다.

또 방림2동 행복학습센터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도시락 & 홈 파티 요리교실과 재봉틀 초보 탈출하기를 운영하며, 봉선1·2동 행복학습센터는 택견 생활체조와 노후 행복을 위한 치매 예방, 스마트폰 활용 방법 프로그램을 개설해 주민들을 맞이한다.

사직동 행복학습센터는 전통 혼례와 인문학 교실을, 월산4·5동 행복학습센터는 각각 힐링 건강체조와 발 컨디션 관리 및 웰니스 건강 운동을 진행한다.

이밖에 백운1동과 주월2동, 효덕동 행복학습센터에서도 디지털 활용 교육을 비롯해 엄마와 나의 요리법, 손 글씨 아트 프로그램을 펼친다.

/임채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상위 10결 중 6명이 도의원이고, 2명은 기초단체장이다. 명 군수와 이 군수는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재산 순위 톱10에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억2463만 원으로 광역단체장 중 8위에 올랐고,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박창환 경제부지사는 각각 8억

3689만 원과 14억1235만 원을 신고했다.

김 지사는 총재산의 60% 차지하던 부부 명의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가 17억여 원으로 1억 원 가량 오르고, 사인간 채무 1억 원을 갚아 결과적으로 재산이 2억 가까이 늘었다.

신고 대상자 중 20억 원 이상 재력가는 14명, 10억 원 대 재산 보유자는 17명,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23명에 달했고, 1억 원 미만은 5명, 마이너스 재산은 단 1명

으로 집계됐다.

재산증가액 1위는 이동현 도의원으로, 1년 새 38억4458만 원이 늘었다. 법인(비상장주식) 관련 신고사항 기재 오류가 바로 잡히면서 전년보다 35억 원 가량 증가했고, 예금도 일부 증가하면서 4년 내리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진호건 도의원(19억4467만 원), 노관규 순천시장(8억7230만 원), 정순관 자치경찰위원회장(3억4542만 원), 김성

장흥군수(2억906만 원), 박성재 도의원(2억546만 원) 순으로 증가했다.

13명이 1억 원 이상, 20명이 1억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증가한 반면 절반에 가까운 32명은 감소했다. 감소액 1위는 명현관 해남군수고, 모정한 도의원과 임형석 도의원이 뒤를 이었다. 김 군수는 배우자 명의의 해남 상가 처분으로 12억 원가량이 줄어든 반면 채무 상환으로 빚도 7억2000만 원가량 줄었다.

/연성호 기자

